

직접 찾는 농업행정 시동

심 민 임실군수, 전 지역 수매현장 방문·건조벼 1763t 매입키로

심 민 임실군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8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수매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농민들과 함께 하는 '농업행정'에 시동을 걸었다. 심 군수는 지난 6일부터 신덕면을 시작으로 관내 25개 공공비축미 수매현장을 직접 찾아, 올해 쌀 작황 및 매입상황 등을 점검하는 꼼꼼히 챙겨 나가고 있다.

9일에도 심 군수는 관촌면과 운암면, 청음면, 오수면에서 진행된 수매현장을 오전 일찍부터 찾아 관계자들과 농민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올해 임실군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은 '신동진' 1개 품종이다. 건조벼 1,763t(4만4,072가마/40kg)을 매입할 예정이다. 건조벼 수매에 앞서 지난 9월 27일부터 임실통합RPC에서 산물배 배정물량 총 415t(1만364가마

/40kg)를 매입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품종 외 혼입을 막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표본조사)을 실시해 매입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품종 검정제 도입으로 매입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한 경우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품종 확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월~12월) 전국 산지 쌀값 평균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매입대금은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중간정산금(3만원/포대)을 지급하고, 최종정산은 최종 매입가격을 확정하여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적기 출하해 매입기간 내 전량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갈수록 고품질화



는 어려운 농촌현실과 더욱이 올해는 지독한 폭염까지 겹쳐 농사환경이 너무도 열악했던 데도 애써주신 농민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 지역 농민들이 일궈낸 귀한 결실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업인 월급제와 농기계 임대사업 등 다양한 농업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민이 살기좋은 임실을 만들어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농특산물 해외시장 공략

베트남·싱가포르 판촉행사

남원시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 특산물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과 싱가포르에서 다시 한번 입증받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베트남 하이노이 K마트 2개 매장과 싱가포르 코리아마트 7개 매장에서 남원 농·특산물 판촉전을 열고 교민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 홍보·판촉행사를 실시했다.

베트남 및 싱가포르 판촉행사는 수출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사전에 바이어와 상담을 통해 선적한 농특산물 60톤(1억원 상당)에 대한 판촉전을

열어 현지 마켓에 전량 판매하였으며, 남원시는 이번 판촉전을 위해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인 남원원협에서 공동선별한 춘향애인 배를 비롯해 건나물류, 만두, 전복차, 추어탕, 김부각, 잡채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수출했다.

베트남 하이노이와 싱가포르는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한국기업들의 투자확대로 현지 주재원과 교민들이 늘어나 수출 주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남원시는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남원 농특산물을 수출을 늘리기 위해 수출물류비 및 판촉행사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는 올해에 농특산물 약 260억 원의 수출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이강보 남원시 원예허브과장은 "남원농산물공동브랜드 '춘향애인'으로 올 한해 850억원의 매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효심행정 일번지 임실, 노인대학 졸업식

임실군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운영 중인 노인대학 졸업식을 가졌다.

군은 제37회 임실군 노인대학 졸업식을 임실군지회 2층 강당에서 심민 임실군수, 신대용 임실군의회의장 및 관내 각급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졸업생 2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고 지난 9일 전했다.

노인대학 수강생은 모두 230명으로, 수강기간은 7개월간 30주 과정이다. 어르신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2시간씩 강의를 듣는다.

강의는 노인들의 일상생활에 보탬이

되는 교양이나 건강강좌, 공연관람, 노래교실, 현장견학 등 다채롭고 흥미 있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강좌를 열어 지역 어르신들이 인생을 더욱 멋있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노인대학은 임실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에 도움을 주고, 끊임 없이 학습하고 열정을 맘껏 펼치는 어르신들의 열정을 담아내는 배움터로 호평받고 있다.

노인대학 졸업식에서 심 민 군수는 "임실군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은



만큼 효심행정에서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 많은 노인복지 정책을 개발, 노인복지 일번지 임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농업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널리'

남원시,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남원시 사람의 광장 앞 요천둔치 특설무대에서는 지난 9일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농업인을 격려하기 위한 제23회 남원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농업인 등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농업이 우리민족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성을 알리고, 한해 동안의 노고를 서로 위로하고 친목을 다지고자 남원시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관해 추진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농업의 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에 기여한 공로로 고품질 쌀 부문에 대강면 진일하

씨, 원예특작부문에 인일면 김재종씨, 과수부문에 대신면 문경호씨, 축산부문에 산동면 이은경씨, 임업부문에 대신면 최재연씨, 수출 및 유통부문에 덕과면 김태곤씨에게 남원시 농업인대상을 수여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그간의 농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현재 직면해 있는 어려운 농업을 농업인단체회원들이 한마음 되어 극복해 달라고 당부하며, 괴담 흘러 일군 농산물에 제값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도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남원농업의 선진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농업인의 날 행사 성료

순창군이 지난 9일 일품공원에서 제23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황숙주 순창군수와 정성균 순창군의회의장, 최영일 전북도의의원 등 관내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1,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해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순창군이 주최하고 순창군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과 전통놀이 경연대회,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농업인의 날은 1996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올해로 23해째를 맞이했다.

전날 비가 내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날을 축하하는 관내 주민들이 모여 북새통

을 이뤘다.

이날 1부 행사로 순창을 한삼라씨 등 읍면별 1명씩 총 11명의 주민들이 순창군수 표창패를 수여 받았으며, 2명의 주민들이 위원장의 표창패를 수여받아 고된 한해 농사의 노고를 치하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순창 한우협회 무료시식회도 열려 군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노래자랑으로 이어진 2부 행사에는 읍면을 대표하는 실력자들이 참가해 열기를 더했다.

살대송 농축산과장은 "농촌지역 고품질로 일순부족, 인건비와 재값 상승으로 농업경영구조가 악화되고 있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농업인들이 잠시나마 격정을 잊고 흥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남원시는 지난 9일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존감 회복 및 소통능력 강화 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상반기 지역자활센터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이어 두번째로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자활 참여자의 자존감 및 성공적인 자립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에는 2개 민간위탁기관 및 7개 읍 면 동 자활참여자와 담당 공무원 총 23여명이 참여했으며, 근태 및 자활사업 참여 유의사항 교육과 내소사 및 부안청자박물관 관람 및 체험 등 심신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강원구 주민복지과장은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위한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일을 통한 빈곤탈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

순창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9일 일품공원 일원에서 농촌지도사업 참여농가 및 일반농업인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를 가졌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ICT기술을 접목한 삼채소 수경 재배 시범, 기능성 특수미 재배 시범, 플럼코트 재배시범 등 소득작물분야 20개 사업, 체험 및 치유농업 분야 3개 사업,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 등 총 27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또 농작물 병해충多发해충 방제지원과 농가소득향상 시범사업, 블루베리 분양 농장 운영, 치유체험 농장 육성 및 치유효과검증 임상연구 등을 홍보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시범사업 평가회를 통해 참여농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우수 시범사업은 확대 지원하고, 문제점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치유농장 64개소 육성과 30명 대상으로 한 치유효과 검증연구를 추진하는 등 치유와 힐링을 접목한 치유형 체험관광의 1번지로 앞장서 나가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